

# 절이 있어 행복하여라

사람과 자연을 잇는 징검다리 '절'의 미학



산과 절이 이룬 최고의 조화를 보여준다.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

"절로 가는 길은 곧 산으로 가는 길이고, 산으로 가는 길은 또한 절로 가는 길이다. 산과 절은 구름과 비의 관계처럼 서로를 내포한다. 마치 바위나 구름처럼 산의 일부로 존재하는 절은 그곳으로 발길을 한 사람들이 절로 자연의 일부가 되게 한다. 가장 자연화된 인간의 거처, 절은 그런 곳이다. 절은 지음(知音)이다. 산에 절이 있어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내밀한 풍광 속으로 들어설 수 있다."

<자연과 사람사이 절>을 펴낸 윤재학(동화작가, 前 본지 취재부장)씨는 절집을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말한다. 절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 있으며, 사이는 '관계'이며 '거리'라는 것이다.

그는 "그곳엔 절교 사람들의 출몰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 소나무가, 그것도 휘어진 소나무가 기둥이나 대들보가 되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또 그곳엔 헛된 것들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산다"고 단정한다.

저자는 이런 절의 대표적인 곳으로 연꽃봉우리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를 꼽는다. 그는 언제 가봐도 산과 절이 이룬 최고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산과 짝하여 어울리지 않는 절이 있겠습니까만, 청량산과 청량사의 관계는 '이것과 저것'의 경계를 지우며 온전히 한몸을 이룹니다. 청량사는 가파른 산 기슭에 깃든 작은 절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쇠락의 경과만은 아닙니다. 산세로 미루어 볼 때 흥성했던 시절에도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일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산 자체를 깨달음의 집으로 삼고 봉우리를 부처와 보살의 현신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그의 시각은 정적이다. 절에 있는 산신각을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 산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우리네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보였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그에게 절은 부처와 같은 말인 자연의 품과 같다.

그는 독자들에게 절에 갈 때 그냥 보고 느꼈으면 한다고 말한다.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옳다면 '보는 만큼 안다'는 말도 그만큼 알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가 책의 서두에 어떤 이유로 절을 찾든, 절집에 머무는 동안 만큼은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통 절의 존재의미를 새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자연과 사람사이 절 윤재학 지음 명상 1만3500원

이는 신앙의 공간으로 어린이는 문화재로서, 어린이는 휴식처로, 어린이는 구경거리로 받아들인다.

저자는 책에서 계속 절에 대한 환상개기에 주력한다. 절은 무조건 평화롭고 신선들이나 사는 이상향 같은 곳이라는 환상을 가지지 말라 말한다. '행여 있을지 모를 독자의 오해를 깨기 위한'이라고 사족을 덧붙이고 있지만 그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절은 분명 사람이 사는 곳이며, 또 다름말로 세밀하게 얘기하면 가장 자연화된 거처라는 것이다. 절과 자연과 사람의 이상적인 어우러짐을 증명적으로 본 것은 그것이 궁극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그가 얘기하는 절은 열린공간으로 귀결된다. 무당도 오고 타종교인도 올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가급적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개념을 설명해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독자들 스스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기 위해 절의 자연주의 미학에 대한 발견을 시도하며, 풍부한 사진을 곁들이면서도 현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흑백위주로 사용했다.

이 책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절에 담긴 자연주의 미학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찰의 역사와 인물, 관련된 불교교리가 글 속에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자연을 닮은 집으로 장곡사 고운사 미항사 백양사 부석사, 자연이 담긴 집으로 망해사 향일암 대흥사 신륵사 청량사, 자연을 담은 집으로 운주사 선운사 화암사 무량사 범종사, 부처와 사람이 만나는 집으로 은해사 봉정사 내소사 법화사 수종사를 들고 있다.

저자에게 다시 한 번 꼭 가고 싶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충남 부여의 만수산 무량사를 꼽았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을 등지고 출가승이 되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곳, 그리고 김시습의 시비가 있는, 패망한 백제 땅의 있는 사찰인 무량사에서 저자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낯선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네티즌강추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과 방법

**블루오션 전략** 교보문고, 르네 마보인 지음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이 무의미한 비경쟁 시장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유행경쟁의 레드오션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게 한다. 즉, 경쟁자를 벤치마킹하거나 줄어드는 수요를 경쟁업체와 나누는 대신, 수요를 늘리고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이다. 이 책은 기업에게 도전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블루오션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기존 경쟁시장인 레드오션에서 가치혁신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시장인 블루오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기존 시장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전례 없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전쟁이 심화되고, 가격 마진이 축소되어 점차 전인미답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블루오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블루오션 전략은 경쟁사를 이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구매자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공간을 열어 나가자는 것이다. (lee13925, aladdin.co.kr)

환상과 현실 그 너머, 숨겨진 희망찾기

**돌멩이** 해냄출판사, 사라마구 지음

사라마구의 상상력은 기발하다. 환상과 현실을 경계 없이 넘나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어느 날 땅이 갈라져 반도가 섬이 되어버렸다. 이베리아 반도는 거대한 돌멩이가 되어 태양 위에 동공 떠난다. 다른 섬과 충돌하는 순간, 이 돌멩이는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이제 이베리아는 텅빈 폐가처럼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밟히고 죽는다. 뻔만이다. 이베리아를 두고 세계의 강대국들은 자기 잇속에 맞게 이리저리 쪼개 재단질을 한다. 작가는 네 명의 등장인물들의 속내를 자유자재로 나타내는 한편, 세계 정상국가들의 쫄쫄한 목소리까지 쫄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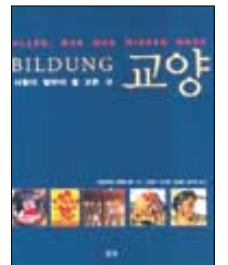
그러나 이 상상력을 착하게 즐겼다가 보면, 구린내 나는 곳을 모두 지내게 된다. 혐오스럽지만 그 안에서 절망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으니 난처하다. 하지만 끝내 사라마구의 결론까지 동행하면, 내 안의 절망은 어느새 순진하게도 희망이 되어 있다. 땅에 꽃인 마른 나무토막이 기적을 일으켜 뿌리를 내리고 녹색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제 곧 꽃이 필 거라는 기대도 당연하게 줄 것이다. (이림, yahoo.com/ysp/libro)



## 책속의 밑줄긋기

○... 바그너가 살았던 시기에 확인되는 이러한 승배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편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예술이 지배할 수 있는 최고봉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예술의 최고봉은 음악이라고 믿었고, 상징주의 시대에도 문학은 마치 음악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 세기 전환기의 미학주의에서도 삶은 예술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이에 상응하여 바그너는 종합예술을 구상하여, 모든 예술을 음악의 지배 아래 두려고 했다. 텍스트와 음악, 그리고 무대장치와 무용안무가 일일이 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그의 오페라는 더이상 숫자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막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등장하도록 구성되었다.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448쪽에서, 들녘, 디트리히 슈비니츠 지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 복용100일후 발생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지회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제철제 운(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중풍) (구토), (눈의이상) 등이 나타나면, 100여년부터 실험하여 만든 분말제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응시시켰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 지회는 이제 단 한번도 발병한 시 ◆ 지회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 없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 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필 건강성니다.
- ◆ 이련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 위험판매행위를 압습니다.
- ◆ 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라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1-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 주원료: 야생 머위 추출 액상과 생채식 추출물, 곡류 추출물, 풀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중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음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종: 미중, 흰색

**원두막 경방가로 7000x4000x3200(mm) 홍보할인가격 698만원 - 550만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원두막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x 820 x 350(mm)가:150,000 환:120,000  
1800 x 1630 x 350(mm)가:180,000 환:150,000

특수 대적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어도 딱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며 열매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립식제품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www.bungaro.com 평상.net / 원두막.kr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권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통복무기세발도] 지역대리점 모집

바로보인의 책을 대한 문화재단 이사장 역자 / 조가

건강 대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제원 선사님 역자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사(神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새월을 목재로 세상을 목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대륙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태 소실마다 대한 문제원 선사님의 사상이  
화살을 파벽에 격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사산대의 희곡을 꿰뚫어  
보시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02-522-0122 www.zenparadise.com